

김영아 교수의 놀이로 脈 잡는 논술

05. 논리 이야기

1. 논리의 기본 구성

① 교사의 역할- 초등논술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점

- * 논술의 논리영역과 표현영역을 이해하고 접근한다.
- * 대입논술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기본적으로 습득하게 한다.
- *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적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 * 호기심을 유발하여 논리를 익힌다.
- * 논리를 구성하는 나열, 분류와 통합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한다.
- * 수많은 지식과 경험의 나열 속에서 기준을 정해 분류하고 다시 대 통합을 시킨다.

예1) 매운탕을 끓인다.

- * 나열: 장 보기
- * 분류: 매운탕거리 손질
- * 통합: 보글보글 매운탕

예2) 논제: 인간과 자연

- * 나열: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농약을 사용하지 말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매연을 줄이자, 공장의 매연도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오존층 파괴를 막자, 나무를 심자, 생활용수를 버리지 말자, 물고기를 함부로 잡지 말자, 불조심을 해서 산림을 보호하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 산에서 취사금지, 노상방뇨금지, 삼푸를 쓰지 말자, 세제를 줄이자 등등
- * 분류: 대기 오염과 관련 / 수질오염과 관련 / 토양오염과 관련
- * 통합: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의식의 전환필요, 그에 따른 실천의 자세 다짐

2. 나열과 분류

① 나열이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의 합이다.

㉠ 식에 의한 나열

- * 책을 통한 정보- 백과사전, 상식, 학술서 등
- * TV를 통한 정보- 시사, 정보성 오락프로, 퀴즈 프로그램 등
- * 신문을 통한 정보- 옴부즈맨, 사건 사고 고발, 세상 읽기, 스포츠 등
- * 컴퓨터를 통한 정보- 다양한 정보제공(정보의 바다)(단점: 무분별한 정보공유,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전문성, 질 낮은 정보습득)

㉔ 경험에 의한 나열- 맛, 냄새, 촉감, 보이는 것, 느끼는 것(비 언어적 메시지)

예)

- *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 그리움
- * 역겨운 냄새가 풍긴다.- 꺼림. 거리 둠. 오랜 방황
- * 다리를 꼬고 앉아 입가에 웃음을 띤다.- 비웃음. 도도함 등

㉕ 이 외에 자연환경, 사회의 용인된 규칙과 규범, 종교적 신념 등이 나열의 큰 줄기를 더한다.

② 분류란 사물들을 집합으로 나누는 활동을 말한다.

- * 분류하는 이유- 지식이나 정보. 경험을 체계화한다.
- * 사물의 중요한 특징이란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징”을 말한다.
- * 사물의 본질적 특징을 찾아내고 그 특징에 기초해 나열된 것을 나누어 집합을 만든다.

예) 나무의 본질적 특성을 찾아보자.

- * 식물이다.
- * 줄기와 가지. 잎이 있다.
- * 움직이지 못한다.
- * 열매가 있다.- 이것은 본질적 특성이 될 수 없다.(은행나무)

3. 통합, 하나의 예술작품

통합이란 나열과 분류를 거쳐 취합된 논거들을 연결해서 논술문을 완성하는 것이다.

①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단락과 단락의 효율적 연결을 통한 통합

② 단락 구성 원리

㉑ 통일성

- * 단락 전체가 하나의 생각, 소주제를 중심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를 일관성이라고도 한다.

예)

- 대주제: 사회적 책임 있는 언어 생활 중요성 인식
- 1단락 소주제: 언어와 사회 생활의 관계 부각, 인간의 언어 생활과 사회적 책임 문제 제기
- 2단락 소주제: 왜곡된 언어 생활 예, 일제하 친일 지식인들의 친일 행위,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 3단락 소주제: 왜곡된 언어 생활의 문제점, 반민족 행위의 부당성, 문화적 사대주의/주체성 상실

- 4단락 소주제: 왜곡된 언어 생활의 극복 방안, 올바른 가치관 확립,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 인식의 필요성

㉠ 완결성

- * 하나의 생각은 단락 내에서 완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주제문: 논술자의 주관- 주관적 서술: 추상적 진술
- 뒷받침 문장: 논술자의 주관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객관- 객관적 서술: 구체적 진술(이때 창의적 사고를 요함)

㉡ 응집성

- * 한 단락 내에서 각 문장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따로 떨어질 수 없어야 한다. 응집성을 얻기 위해서는 접속어, 지시어, 연결 어미, 유사한 어구의 반복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내용이 없는 글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보충 학습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부적합한 호응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반적인 언어 사용 자세는 형식적이거나 때때로 비속어가 난무한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소수일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마구 해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번복하든지 또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상황은 결국 개개인의 성숙되지 못한 가치관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견전하지 못한 사고 방식이 사람의 말까지 바꿔 버리는 것이다.

→ 주제를 논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논거는 구체적, 객관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데 이 단락에 사용된 뒷받침 문장의 예는 구체적인 특정인이거나 집단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논술자가 임의로 만든 추상적, 주관적인 성격을 지닌 가공의 인물이다. 결국 자기 주장을 자기가 만들어 낸 추상적인 뒷받침 문장을 통해 입증하려고 했다. 따라서 단락의 소주제를 드러내기에는 부적합하다.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명확한 관계의 예>

감상을 위한 독서에 있어서는 문학 작품을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 속에 융해되어 있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른 감상의 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수필을 감상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수필 문학의 특질을 연구하려는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우리는 수필들을 낱알이 뜯어 볼 필요를 느낀다. 부분들에 나타나는 특질들을 종합하면 전체의 특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학 작품 감상과 연구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왜 부분으로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했다. 어느 한 문장만으로 주제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전체 흐름을 파악하여 주제문을 ‘수필 연구를 위한 작품 분석 필요성’ 정도로 작성할 수 있다.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가 직접적이면서도 뒷받침 문장이 주제문에 대해 구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